



통권 제 227호

강남. 라 00943

2566
2022

09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5
시절 인연



십선성취
변화론



디딤돌
명상과
함께하는 삶

영원한 신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215

수행修行

불교의 모든 계행戒行은 인간의 존엄성의 고조를 위해서이다.
 불교의 모든 정진精進은 인간의 무한한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불교의 모든 지혜智慧는 인간의 무한한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이다.
 부귀하면 교만하기 쉽고 빈천하면 아첨하기가 쉽다.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으면 이를 성불成佛했다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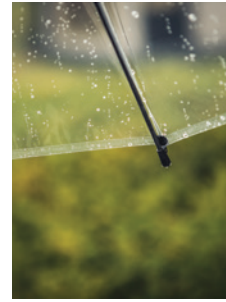
영원한 진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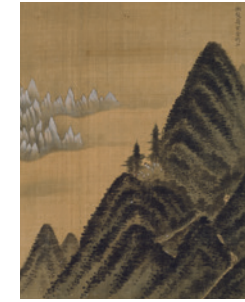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살다보면 _ 18
 기울어진 우산
 _ 이옥경



붓다in미디어 _ 26
 스타워즈 6부작
 _ TERU(조세훈)



문화재 해설 _ 57
 '신묘년풍악도첩'
 _ 위드다르마 편집실

| | |
|---------------|--|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불공 잘해라 - 제1장 시절 인연 - 김천 |
| 12 불교이야기 | 참회懺悔 4 - 화령 정사 |
| 18 살다보면 | 기울어진 우산 - 이옥경 |
| 24 산책 | 산 길 - 김대곤 |
| 26 붓다in미디어 |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 TERU(조세훈) |
| 29 마음의 등불 | 고우苦雨 - 김준섭 |
| 32 지혜의 뜨락 | 봄의 햇살 같은 사람이 필요해 - 방귀희 |
| 36 십선성취 | 변화론 - 남해 정사 |
| 39 죽비소리 | 업장소멸의 길 - 김봉래 |
| 42 디딤돌 | 명상과 함께하는 삶 - 신진욱 |
| 46 경전에서 찾은 지혜 | 인신人身의 난득難得 - 불교총지중 법장원 |
| 49 가배이야기 | 사찰의 커피문화 - 김상미 |
| 54 차향기 | 차의 성질 1 - 김정애 |
| 57 문화재 해설 | 정선의 《신묘년풍악도첩》 - 위드다르마 편집실 |
| 60 여행여담 | 구룡포 차차차下 - lovely씨이 |
| 66 결망에 담긴 이야기 |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 법일 정사 |
| 68 뜻 바꾸기 | 성숙星宿 - 김재동 |
| 70 씨앗 한 알 | 삶이라는 영화에서 빠져나오기 - 법상 스님 |
| 74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
| 78 법회일정 | |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언어생활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잘 모르겠다, 두고 보자, 너 때문이다’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의 말은
‘하자, 하면 된다, 나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두 언어의 차이를 통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대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정진하는 사람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가볍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을 뿐이지 자신을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법도 없습니다.

‘현명한 언어’

‘도전할 줄 아는 용기’

‘위기 때의 침착함’

이 세 가지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는 말을 하지만,
이 중에서 긍정의 말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중요합니다.

무의미한 말보단 침묵을 지키고
부정의 말보단 희망의 말로 바꿔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2년 8월 2일 자>

불공 잘해라 제1장 시절 인연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조자'
'인생탈춤-태허 흥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5화-다시 만주로③

일제의 중국침략이 절정에 이르러 1937년 이른바 지나사변, 즉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중일전쟁 이듬해부터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공포하고 한반도의 노동력과 물자를 수탈하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 폐쇄와 노동력 동원, 식량을 비롯해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빼앗아 간 것이다.

학교에서는 일제 식민 교육이 강화됐고, 충성 어린 제국신민을 양성하라는 압박이 쉴 틈 없이 내려왔다. 일반 가정의 수저와 밥숟까지 공출이란 이름으로 약탈당했다. 집안의 가양주와 제주담는 일까지 감시하며 식량을 약탈하는 일에 혈안이 됐다.

일제강점기 말단 행정관서인 군과 면 단위는 공출을 위해 주민을 압박하는 일을 업무로 삼았다. 대성사는 공출을 독려하는 업무와는 관련 없는 교육예산과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1930년대 함양 시가 전경

심적 부담을 떨칠 수 없었다. 군의 서기로 일하는 한 일제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복잡한 심사가 있었다.

1940년 1월 14일 조선총독부는 조선징발사무세칙을 훈령 1호로 공포하였다. 전시 동원을 위해 사람과 물자의 징용 징발에 관한 사무규정으로, 조선군사령관 또는 사단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징발할 수 있도록 조선 전역의 도지사들에게 자동차와 직공 인부 등의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선의 모든 관공서는 이에 따라 징발 가능한 인원과 물자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학생들까지 그 대상이 되었다.



1942년 대성사가 재직 중이던 함양농업실수교 전경

이 훈령에 따라 각 지역에서 징발된 인력은 보국대,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끌려가 전쟁을 위한 강제 노역으로 혹사를 당했다. 홋카이도의 광산부터 군수공장까지 조선의 청장년들은 명분 없는 전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을 지켜보던 대성사는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 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대성사는 금강관을 불렀다.

“내 긴히 상의할 일이 있소.”

“어떤 일입니까?”

“더 이상 군 서기 일을 못할 것 같소.”

“특별한 일이 생겼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정세가 심상치 않소. 조선 땅의 물자들을 파악하고 있고, 징발할 수 있는 인력은 학생이라도 모조리 잡아갈 셈이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곧 큰 전쟁을 벌일 것 같소. 교육비 위원회에도 학교 물자나 인원 징발을 준비하라는 언질이 있으니, 곧 일본인을 대신해서 조선 학생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일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럼 어찌시겠습니까?”

“군청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겠소.”

“생각해두신 일이라도 있습니까?”

“당장 일을 그만두면 징용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니, 멀리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소만……”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금강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리 해야겠지요.”

결국 대성사는 일제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2월 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군 교육비 위원회 서기 직을 사임했다. 세상살이는 쉽지 않을지언정 일제의 전쟁정책을 이끄는 앞잡이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배운 대로 세상 이치 속에서 익힌 인간다운 삶의 길을 따라서, 일제의 손발이 되어 동포를 수탈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다시 광야에 서는 심정으로 신념을 굽히지 않는 대신 현실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자신의 뜻으로 내일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노예의 삶이며, 하루하루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대성사는 가족을 이끌고 또 다른 운명의 길을 걷기로 했다.

군 서기를 그만두고 대성사가 눈을 돌린 곳은 북만주 하얼빈(哈爾濱). 당시에는 할빈 또는 하르빈, 하루빈 등으로 부르던 곳이다. 이곳 역시 우리 민족과 깊은 인연이 서린 곳이다. 고구려의 옛 영토이며 발해의 땅이었던 곳.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루부미를 저격한 곳이며, 대흥안령 일대에서 시베리아의 얼음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독립군들이 투쟁하던 땅이기도 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인들이 도시의 주인이었지만 러시아 혁명과 러일전쟁 이후 판세는 바뀌었다. 서양인들이 몰려와 작은 유럽을 이루어 동양의 파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공장과 은행, 회사 등이 줄이어 문을 열면서 북만주의 중심도시로 바뀌었다. 일제가 점령한 곳 중 일본과는 북쪽으로 가장 멀리 있는 땅이었다.



1941년 하남면 직원 동료들과 함께 맨 뒤 정중앙 대성사

일제는 만주 지배를 굳건히 하기 위해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정책을 폈다. 일본인들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잡기 위해 만주로 갔는데 대략 150만 명 이상이 만주 일대에서 터전을 잡았다.

조선인들은 대부분 일제의 수탈에 의해 땅을 빼앗기고 살

길을 찾아 만주로 건너가고 있었다. 약 100만 명 정도가 만주 땅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대성사 가족이 서간도로 망명할 때는 총을 들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다시 만주로 눈을 돌린 것은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압박이 점차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낙인찍혀 있었고, 공출과 인력 징발로 일제의 앞잡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만주는 그 압력을 덜 받는



1930년대 밀양백산에서 원정대성사 가족사진. 중앙 대성사 양친, 맨 왼쪽 대성사, 맨 오른쪽 아내 금강관 전수

곳이기도 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주는 새로운 기회와 번영의 매력이 있는 땅이었다.

만주국이 세워진 후 1932년부터 일본군이 진주하면서 조선인들의 하얼빈 진출도 잦아졌다. 대성사 가족이 이주한 시기인 1940년 하얼빈의 대략적인 인구는 만주국 수립 후 40만을 돌파한 뒤 6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대도시였다. 그중 조선인들은 10만 명이 넘는 규모로 민족 구성비가 적지 않았다. 그만큼 정

착하기에 쉬운 편이고, 업을 도모하기에도 어렵지 않으리라는 점을 고려했다.

하얼빈은 서양의 문물과 유럽의 패션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번영과 기회의 땅이었다. 조선인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1940년에는 조선인 중학교가 문을 열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봉천과 만주국 수도 신경까지 급행열차가 달렸다.

경성과 하얼빈은 직통 전화가 개통돼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동아일보 등 국내 신문사도 하얼빈에 지국을 개설하여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 흐름을 타고 1940년대가 되자 조선 땅에 하얼빈 바람이 크게 불었다. 대중가요와 문학작품에 하얼빈이 무대로 자주 등장했다. 당시 신문과 잡지에는 하얼빈 기행 기사가 유행처럼 실렸다.

가수 김선영은 ‘하얼빈 여수^{旅愁}’라는 노래를 발표해 인기를 끌었고, 진방남은 ‘꽃마차’에서 “노래하자 하르빈 춤추는 하르빈”을 노래했다. 이난영은 1942년 ‘하르빈 차방^{哈爾濱 茶房}’이란 노래를 불러 크게 히트했다.

노랫말에서 하얼빈은 “푸른 꿈이 있는 희망의 땅”이라 그려지고 있다. 이런 가삿말처럼 하얼빈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큰 희망의 땅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참회하는가?

부끄러워하는 것과 참회하는 것에는 잘못을 고쳐서 선을 행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 한다는 것은 내적인 반성이 주가 되는 행동이고, 참회는 외형적인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회에는 우선적인 선결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드러내고 나타내어’ 참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낸다.’ 함은 자신이 범한 잘못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으로 만약 조금이라도 숨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깨끗한 참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드러내놓고 참회할 때에는 참회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며 어떤 인연을 갖추어 참회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된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하여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하여 늘 불만인 것은 일본이 과거에 우리에게 끔찍한 잘못을 36년 동안이나 저질러 놓고도 한 번도 진심으로 참회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 왜곡으로 늘 자기들을 합리화하



고 거짓을 감추며 때로는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줬다고 우기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떼를 쓰기 때문입니다. 어느 양심 있는 일본인이 말했듯이 사과는 사과 받는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면 우선은 그 피해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한이 풀어지고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참회는 가장 우선적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잘못을 저지르면 ①불상 ②보살상 ③스승이나 웃어른 ④대중을 향해서 참회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불상이나 보살상 앞에서 참회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 상 앞에서 참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참회는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나 웃어른에게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참회의 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대중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어 참회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대신 공덕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회를 하는 것에도 갖추어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사분율갈

마소四分律羯磨疏》제 22권에 의하면 참회하는데 갖추어야 할 인연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① 시방 제불 보살님을 모신다.
- ② 독경하고 진언을 외운다.
- ③ 죄업을 스스로 털어놓는다.
- ④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운다.
- ⑤ 교리로 증명한다.

또한 대승불교의 한 경전에 의하면 참회를 할 때에 다음의 다섯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 ① 도량을 깨끗이 한다.
- ②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한다.
- ③ 단을 설치하고 오색 번을 내걸고 향을 사르고 등을 밝히며 높은 자리를 만들어 24존의 불보살상을 모신다.
- ④ 7일간 목욕재계한다.
- ⑤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린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형식의 참회가 아니더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스스로 참회하며 불공을 하거나 독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회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관보현보살경^{觀普賢菩薩經}》에는 재가불자의 참회법에 대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 ① 삼보^{三寶}를 비방하지 않고 더 나아가 육념^{六念}을 수행한다.
- ② 부모께 효도하여 모시고 스승과 어른들을 존경한다.
- ③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비와 덕목으로 사람을 대한다.
- ④ 육재일^{六齋日} 때 살생하지 않는다.
- ⑤ 인과를 믿는다.

육념은 육념처^{六念處} 또는 육수념^{六隨念}이라고도 하는데 불^佛·법^法·승^僧·계^戒·시^施·천^天의 여섯 가지를 각각 조용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천은 열반의 과^果 혹은 최후 신십지^{身十地}의 보살을 뜻합니다. 이러한 육념을 통해서도 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육재일은 재가자들이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팔재계를 지키고, 선사^{善事}를 행하는 정진일로, 매월 8,14,15,23,29,30의 여섯 날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날에는 살생과 관계된 어떤 것도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참회를 합니다.

이처럼 《관보현보살경》의 참회법은 한 마디로 삼보를 공경하고 삼보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 참회로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① 좋은 말을 하여 참회한다.
- ② 공덕을 많이 지어 참회한다.
- ③ 열심히 봉사하여 참회한다.
- ④ 다른 사람의 참회를 성취시켜 준다.
- ⑤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참회한다.
- ⑥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불하며 참회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참회 법을 살펴보았을 때,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게 참회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이들을 위해 선업을 행하는 것이 더욱 적극적인 참회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우산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오늘 또 그들을 만났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아침, 작은 우산에 몸을 의지한 그들, 한 쪽 다리를 끄는 아들과 그의 불안정한 걸음걸이에 보폭을 맞추는 어머니를. 큰길에서였다면 으레 피했을 테지만, 여느 때와 달리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터라 슬그머니 고개를 돌릴 수밖에. 수도 없이 마주쳤지만 단 한 번의 목례조차 주고받지 않고 지나치는 것, 그게 모자와 나의 인사법이였다. 마음으로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드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힘내세요, 하면서 응원의 말 몇 마디쯤 건네고도 싶지만 때로 사람에게는 속속들이 내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도 있는 법. 절망과 슬픔을 되새김질하게 하는 선부른 위로보다 무심한 듯 그저 눈 감고 지나가 주는 게 나을 때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골목 어귀에 선 채 속으로 한 발 두 발 그들의 느린 걸음걸이를 가늠해 보다가 천천히 뒤돌아본다. 장마철이라 예비로 들고 나왔음직한 작은 우산으로 180cm는 좋지 뒹직한 아들의 머리를 가려 주느라 까치걸음을 하다시피 걷는 어머니의 키는 150cm 남짓? 흠뻑 젖은 몸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손을 높이 뻗어 우산대를 부여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 인형처럼 흔들리



는 아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저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대상조차 가늠할 수 없는 기도가 가슴 가득 차오른다.

사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그들 모자를 생각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들 모자와 마주치지 않을까 궁리를 한다. 내 땀에는 배려인 그 얇은피는 번번이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웬일일까 싶어서 목을 쪽 빼고 이리저리 살피는 게 또 다른 나의 습관이기도 하다. 그만큼 그들 모자는 아침 운동을 거르는 날이 없었고, 움직이는 시간도 일정했다.

아니, 나는 그들 모자가 얼마나 일찍 나가서 얼마나 많은 걷기 운동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집을 나서는 일곱 시쯤, 이미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 모자와 스쳐 지날 뿐이다. 그러면서도 그들 모자에 대해 마주치기 싫다느니, 저만치 보이기만 해도 다른 길로 빙 돌아간다느니, 이려고저려고 희떠운 소리를 하는 건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 손에는 아들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늘 접이식 휴대용 방석을 들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이 내 가슴을 적시는 것 같아서였다.

오늘, 어머니는 아들이 비에 젖지 않도록, 아들을 대신해 비를

흠뻑 맞고 있다. 아마도 어머니의 시선은 아들의 전부를 향하고 있을 것이다. 아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었을 어머니, 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고 싶었을 어머니, 마침내 아들을 절망 끝에서 일으켜 세울 저 어머니. 불가에서는 부모를 ‘목숨이 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기 바라고, 죽은 뒤에는 자식의 몸을 지키기 바라는 존재’라고 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깊고 깊은 사랑이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 말 서 되나 되는 영킨 피를 흘리고, 자식에게 여덟 섬 너 말이나 되는 흰 젖을 먹이기 때문에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더해 저 어머니의 뼈는 더욱더 검고 더없이 가벼울지도 모른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내리사랑 덕분일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치사랑도 존재한다. 『부모은중경』의 말씀처럼 효심^{孝心}이 곧 불심^{佛心}이라는 가르침을 일깨워 주던 이들 중에는 수년 전, 역시 아침 운동 길에 만났던 90도로 허리 굽은 늙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느린 걸음에 맞춰 걷다 쉬기를 반복하던 중년의 아들이 있다. 앞으로 고꾸라질 듯 위태롭게 몇 걸음 걷고 멈추기를 거듭하다가 소나무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고, 부축 한 번 하지 않은 채 그런 아버지를 채근하는 아들의 눈빛은 냉정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

지만 운동 길에 마주치는 그 누구도 아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늘 두어 걸음 뒤에서 가만가만 아버지를 따라 걷는 그의 더딘 걸음에서, 소나무에 기대어 허리를 펴거나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 아버지 앞에 한 쪽 무릎을 꿇고 앉아 땀을 닦아 드리기도 하고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그의 투박한 손길에서 아버지를 수백 번도 더 업어 드리고 싶었을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던 부자를 다시 만난 건 2년쯤 후였다. 앞선 사람이 걸으면 뒤선 사람도 따라 걷고, 앞선 사람이 멈추어서면 따라 뒤선 사람도 멈추는 그 익숙한 모습은... 반갑게도 그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허리 수술을 했는데 회복도 느리고 재활도 힘들어서 1년 넘게 죽을 고생을 했다면서 그나마 그동안 우리 아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사지다, 근력운동이다, 서두르는 통에 이제는 이렇게 펄펄 날아다닌다며... 결코 펄펄 날아다니지 못하는 아버지는 굽은 허리를 애써 펴면서 아들 자랑에 침이 말랐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늙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말없이 아버지 뒤를 따르던 중년의 아들이 떠올랐다.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돼 주는 게 또 부모 자식

의 인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건 자식을 위해 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식들의 순응이다. 효도는 백 가지 행의 으뜸이라고 했다. 효심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효행이 곧 부처의 삶인 바, 부처와 같아지려면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여기에 담긴 효는 내리사랑과 치사랑, 자식에게로 향하는 부모의 헌신과 부모에게로 향하는 자식의 순응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쏟아지는 비에도 내 어깨가 젖지 않았다면, 느린 걸음 탓하지 않고 말없이 함께 걸어주는 이가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곧 추석이다. 이번 명절에는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부모은중경』에서 이르듯 ‘고향을 떠나 바삐 살아가는 자식을 따라 마음을 사방으로 기울이며 창가에 머리를 얹고 기다리는’ 부모님의 젖은 어깨를 안아드릴 수 있기를. 아마도 그날, 풍수지탄^{風樹之嘆}에 먼산바라기가 고작일 나 같은 이도 적지 않으리라.

산길 걸어간다
간간히 불어주는 바람이
참 고옴다 생각하며
9월의 시작을 같이 느낀다

풀밭에
이제 가려는 꽃들과
늦게 피어나는 꽃들이
아직 불만하다

곧 가을의 색채가 밀려들겠지만
아직 이들은 법석인다

떠남이 곧 만남의 약속이듯
나는 안다
머지않아 다 떠난다는 것을

온통 마름으로 부서지지만
붉고 현란한 색으로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9월은
그 시작의 아름다운 입구라는 걸
그런 기대가 작동되는 계절의
설레임 이란걸

구름마저 들뜬다는 것을...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TERU(조세훈)

평범한 회사원, 대중음악연구소 음악평론가 제의를 받을만큼 음악과 영화를 관하는데 능하다.
콘텐츠 소개 프로그램 올레티브(파본자들) 출연
500여명 구독자 보유 브런치 작가



#1 스타워즈 6부작(1977~2005)

#2 그녀(Her, 2013)

#3 사랑의 블랙홀(1993)

#4 매트릭스(1999)

#5 아메리칸 뷰티(1999)

#6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2003)

#7 천년을 흐르는 사랑(2006)

#8 위대한 레보스키(1998)

#9 파이트 클럽(1999)

#10 옛지 오브 투모로우(2014)

#1 스타워즈 6부작 (Star Wars Series, 1977-2005)

감독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는 선종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선종 불교 자체가 중국의 도교를 수용한 불교이다. 일단 포스(Force)의 개념 자체는 도교의 ‘기氣’에 기원을 둔 것이다. 원래 조지 루카스는 사무라이 영화와 서부극에 기초해 〈스타워즈〉를 기획했다. 사무라이 영화를 통해 일본 문화가 자연스럽게 반영됐다. 오비완의 오비는 기모노의 허리띠에서 따왔고, 다스 베이더의 투구는 가부토兜에 기인했다.

요다의 그 유명한 명대사 “공포는 분노를, 분노는 증오를, 증오는 고통을 낳는단다.”를 비롯해 그의 가르침은 직관적이다. ‘불립문자不立文字’로 대표되는 선종의 직관적인 사고관에 기원했다. 그리고 제다이 기사단의 규율은 명상을 중시하고,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는다. 즉 불교의 수도적 전통과 매우 유사하다.

〈제국의 역습〉에서 요다는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해 본다는 건 없어.(Do Or Do Not. There Is No Try.)” 라고 말하며 일본 선종 불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과거는 이미 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고, 그게 바로 지금 순간이야.” 라며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정신을 집중하라고 했다. 무사도를 다룬 에도시대의 고서인 ‘하가쿠레葉隠’에 “현재의 단일한 목적 외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

다.”라는 구절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제다이의 귀환〉에서 오비완은 루크에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야. 어떤 관점에서 보면, 루크, 당신은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진실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 이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 라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반영한 대목이다. 이기적인 한 솔로가 자신을 구하러 온 루크의 희생에 점점 감화되어가듯 스타워즈의 선악은 상대적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스 베이더의 길에서 푹푹히 목격한다. 그는 포스의 균형을 가져다줄 예언을 받았음에도 악에 의지하여 항상 철권통치를 위해 매달렸다. 베이더는 자신 밖의 권력을 추구하는 반면, 루크는 내면의 수양을 추구했다. 황제가 다크 사이드에 가담하도록 그를 다그칠 때 루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한편 〈보이지 않는 위협〉의 줄거리는 파드메 아미달라 여왕의 왕위를 노리는 무역 연합을 막는 내용이다. 이것은 달라이라마의 처지를 비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인 파드메는 깨달음의 상징인 연꽃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따왔다.

| | | |
|---------|---------|--|
| 萬事中爲貴 | 만사중위귀 | 모든 일에는 중도가 귀하거나 |
| 樂極亦生哀 | 락극역생애 | 즐거움의 끝에는 슬픔 또한 생기는 법 |
| 箕疇雨暘叙休咎 | 기주우양서휴구 | 홍범 ^{洪範} 에 비 오고 별 나는 것은 길흉의 징험이니 |
| 極無極備均凶哉 | 극무극비균흉재 | 너무 없고 너무 많은 것 전부 흉하다고 하였지 |
| 旱時思雨不厭多 | 한시사우불염다 | 가물 때는 비가 그리워 많이 와도 싫지 않다 |
| 及到多時悶又何 | 급도다시민우하 | 막상 많이 올 때는 그 근심은 또 어떠한가 |
| 農家最怕白露雨 | 농가최파백로우 | 농가에서 백로에 비 오는 것 가장 두려우니 |
| 差過一犁損稼禾 | 차과일리손가화 | 한 때기 땅에도 지나치면 벼가 상한다네 |
| 造兒劇戲一何偏 | 조아극희일하편 | 조물주의 심한 장난이 어찌 편벽되었단 말인가 |
| 我欲梯雲上問天 | 아욕제운상문천 | 내 구름 타고 올라가 하늘에 고하여 |
| 詔使蜚廉掃宿霧 | 조사비렴소숙무 | 비렴에게 짙은 구름 쓸어버리게 하고는 |
| 杖藜出郭觀晴新 | 장려출곽도청신 | 지팡이 짚고 외곽으로 나가 싱그러운 광경 보고 싶다네 |

- 오횡묵(吳弘默, 1834~1906) 《총쇄(叢瑣)》 5책 詩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비에 여러 이름을 붙이곤 하였다. 계절 명을 붙인 춘우^{春雨}, 추우^{秋雨} 뿐만 아니라, 매실 이 익을 무렵에 오는 비를 매우^{梅雨}라고 하는 등 시기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있었다. 또 상황에 따른 명칭도 있었다. 오랜 가뭄 끝에 오는 단비를 희우^{喜雨}라고 하였고, 장마가 오래되어 지나치게 오는 비를 음우^{陰雨}라고 하였다. 또 한해 농사일을 망칠 만큼 모질게 오는 비는 '고통스러운 비'라는 의미로 고우^{苦雨}라고 하였다.

이 시를 지은 오형묵^{吳亨默}은 무과에 급제하여 관료에 들어선 후 정선, 자인, 함안, 고성, 지도 등 10여 지역의 수령을 지냈다. 위 시는 그가 함안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지은 작품이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배경은 가을걷이를 할 때인 백로^{白露} 무렵으로 보인다. 백로에 비가 오면 오곡이 걸여물고 백과에 단물이 빠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농사에 치명적이다. 박지원도 농업과 관련된 저서인 《과농소초^{課農小抄}》에서 '백로에 비가 오면 온 경내가 고통스러워한다. ^{白露雨來一路苦}'라고 기록하였다. 백로의 비는 그야말로 고우^{苦雨}인 셈이다.

비는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너무 적거나 많으면 안 되고 딱 알맞게 와야 한다. 우리 삶에서 중도^{中道}가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과거에는 수재, 한재 등의 자연 현상이 위정자의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서경^{書經}》〈홍범^{洪範}〉편에는 정치의 득실과 국가의 치란^{治亂}이 드러나기 전에 비^雨, 햇빛^暘, 더위^燠, 추위^寒, 바람^風, 때에 맞는 기후변화^時 등의 징조가 먼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이 징조가 너무 한 가지만 나타나도 흉하고, 너무 없어도 흉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 해 농사가 잘될 수 있는 조화로운 환경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위정자의 올바른 정치 행위와 덕성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형묵은 홍범의 구절을 언급하여 재해를 초래한 원인이 위정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위로는 임금부터 수령으로 있는 자신까지 자연재해 앞에서 하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고는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많이 와도 걱정이라며 직접 하늘에 올라가 조물주를 뵈고 바람의 신인 비렴^{費廉}을 시켜 비구름을 쓸어버리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하려는 지방관으로서 고뇌와 애민의를 엿볼 수 있다.

사실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과거의 위정자들은 기후의 변화로 재해가 생길 때마다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를 성찰하였다. 임금이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감선^{減膳},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지어 올리게 한 구언^{求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통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삶에 공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시정하고자 하였다. 올해도 그야말로 고우^{苦雨}가 내려 피해가 크다. 오는 비를 어떻게 막으랴. 그래도 위정자라면 재해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던 옛사람들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봄의 햇살 같은 사람이 필요해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E美지> <숫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착한드라마, 힐링드라마는 시청률이 높지 않다는 징크스를 깨고 자폐인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대박을 터트렸다.

방영채널 ENA는 인지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찾아 들어와서 본방을 사수하며 첫회 시청률은 0.9%이었지만 4회부터 수직 상승하여 다채널 시대에 좀처럼 얻을 수 없는 시청률 10%를 뛰어 넘었다.

언론에서는 드라마 속 우영우를 통해 현실의 자폐인을 비롯한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송을 앞 다투어 편성하였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장애인계보다 비장애인들에게서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자가 성숙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장애인이 등장하면 무조건 재미없다고 외면하지 않는다. 정말 좋은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알아본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주인공 주변 인물이 스마트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세



련되게 드러내고, 장애인 편들기도 아주 은근하다. 선과 악이 있지만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다. 이에 드라마 주변 인물들을 분석하여 독자들이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은근한 사랑꾼

우영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이준호는 우영우가 힘들어하는 것, 즉 회전문을 들어갈 때 박자를 세자고 한다거나, 같은 편이 되고 싶다고 하며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 우영우의 마음을 되돌린다. 그리고 우영우가 좋아하는 고래 얘기를 들이 있을 때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며 우영우에게 은근히 다가간다. 로맨스가 화끈하지 않기에 잔잔한 숨결이 더 잘 느껴지

며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팀원을 신뢰하는 상사

한바다의 시니어 변호사 정명석은 정말 스마트한 캐릭터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갖고 있었지만 우영우의 능력을 파악하고는 일을 맡기며 지지를 아끼지 않는 멋진 상사이다. 우영우를 가장 힘들게 할 줄 알았던 정명석이 너무나 쿨하게 우영우를 받아들인 점을 시청자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화끈한 해결사와 까칠한 지원자

고등학교 동창 동그라미는 표현을 하지 않는 우영우의 마음을 읽어준다. 우영우에게 찾아온 사랑을 먼저 알고 우영우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우영우의 로스쿨 동기이자 로펌 동료인 최수현은 까칠한 듯해도 우영우의 햇살 같은 역할을 한다. 우영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알려주는 등 언제나 지지해준다.

한편 이 드라마에서 악역은 없지만 밉상은 있다. 바로 권민우이다. 우영우를 경쟁자로 생각하여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 골탕을 먹이지만 그것이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영우가 뛰어나서 본인이 질까봐 우영우를 힘들게 하는 것뿐이다. 그 괴롭힘 또한 과하지 않아서 좋다.

그동안 장애인 부모들이 거리로 나가 발달장애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현재 드라마 한편으로 발달장애인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사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우영우 주변 인물이 보여준 스마트한 관심이다.

오늘날 거리에서 발달장애인을 보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며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벗어난다. 장애인들은 음식점 등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에서도 '왜 이런 애를 데리고 나왔느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이다. 이런 현실에서 발달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친구가 되어야겠다. 나도 저런 직장 동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면 한다.

경전에서조차 부처님 또한 장애인을 살뜰히 보살펴주셨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천안제일^{天眼第一} 아나올^{阿那律}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으나 부처님은 아나올을 위해 바늘귀를 끼워주셨다.

이처럼 우리도 장애인에게 햇살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

변화론

남혜 정사

단음사 주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관한 존재론에 대해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크게 나뉜다. 창조론은 기독교의 신화,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 생명, 지구, 우주 등 만물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신학 사상이며, 진화론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중생은 다양성과 적응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 간다는 사상이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하였을 때 사회에 던진 충격은 엄청났다. 다윈은 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동물들의 여러 변종이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라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윈의 주장은 기독교의 창조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약 6천여 년 전 확정된 수의 생물이 순간적으로 신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종교적 믿음은 다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윈의 주장은 ‘성경 말씀’을 거짓이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성직자들은 이와는 달리 다윈의 진화론까지 포용하며 신의 창조설을 확대 적용하려고 시도했었다. 이들



은 신의 창조가 있었고, 진화의 과정도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론의 받아들임은 사회적 진화론자들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과 개인주의, 인종 차별,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의 병폐를 낳기도 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할까?

불교에서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 우주가 수평적 공간의 삼천대 천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수직적 공간의 육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와 지옥, 아귀, 수라, 축생, 인간, 천상의 육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시간적 개념으로의 ‘겁’이 있다.

불교의 인식론에서는 이 세계를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 내 육처와 인식대상인 ‘색,성,향,미,촉,법’ 외 육처를 합한 십이입처로 설명한다. 즉 불교의 인식론에서 이 세계는 내 안의 소우주와 내 밖의 대우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존재론을 아우르는 불교적 진리가 있다. 그것은 연기와 무상으로 대표되는 변화론이다. 불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연기에 의해 일정한 조건에 의해 변화해 가는 현상만 있을 뿐이다.

변화는 우주적 이치이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수행과 자기개발로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은 새로운 생산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종교, 특히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2,500년이 넘는 찬란한 불교문화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것이 불교적 진리이고, 우주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자각^{自覺}으로 기연^{機緣}을 만들어 주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나이 들면서 새삼 업^業의 힘이 참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젊은 시절,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반발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뼈저리게 긍정하게 된다. 집 화장실에서 젖은 신발을 물기가 마르도록 세워놓는 일 하나도 쉽지 않다. 아이들을 나무라도 고쳐지지 않아 어른이 모범을 보이려면 좀 나올까 싶어 지심으로 세워놓지만 상황은 여전하다.

사람의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 생각하다가 스스로를 돌아보니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다는 사실에 새삼 놀란다. 버릇 하나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지적을 받기 일쑤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영락없는 범부(凡夫)여서 부끄러워진다.

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을까. 우선은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 신발에 물이 젖으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치명적인 피해는 입지 않는다. 이래

도 저래도 큰 탈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대하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변화의 필요성을 아예 느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부지불식간에 무심코 하는 행동이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남들은 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낌에도 본인만 느끼지 못하는 경우, 주위의 대중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어떤 지적을 받았다면 일단 따라줄 필요가 있다. 불교의 자자^{自恣}와 포살^{布薩}은 바로 이런 뜻을 담은 공동체 전통이 아닐까.

화장실에서는 신발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고, 젖었다면 세워 놓는 것이 좋다는 자각^{自覺}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면 자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변화는 오기 마련인 것 같다. 필자도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채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 서면서 식습관이 더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고기 섭취를 줄이게 되었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간식도 가급적 삼가게 되었다.

결국 스스로의 깨달음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말로 타일러도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하지는 못한 다는 말이 있는지도 모른다. 명령이나 강요는 복종을 가르치거나 반발을 불러올 뿐 내심에서 비롯하는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

거센 바람이 아닌 따스한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었던 것은 땀을 뻘뻘 흘리게 된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게 되었기 때문이다. 옷을 억지로 벗기려 할 것이 아니라 벗을만한 조건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이다.

그리고 서로가 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는 일도 중요할 것 같다. 나도 상대방도 일시에 급격히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자각하는 만큼 변한다. 그러니 스스로의 자각^{自覺}으로 기연^{機緣}을 제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오랜 동안 소식조차 끊고 살았던 이로부터 돈을 돌려받게 되었다. 그 분은 수십 년 만에 전화를 걸어와 오랜 숙제라며 돈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무엇이 그 분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왔을까.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올만한 인연의 씨앗이 싹텄고 그것이 결실을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터이다. 과거의 업을 청산하고 새 출발하게 된 인연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불교는 무엇보다 자각의 종교다.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마침내 진리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증^{自證}의 깨달음으로 회향한다. 몸과 마음이 원만하고 완전하게 성취되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자각, 즉 깨달음인 것이다.

명상과 함께하는 삶

신진옥 법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심장병 전문의 존 자마라 박사팀이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명상이 이들의 심혈관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 놀랍게도 8개월간 명상을 한 환자들은 러닝머신 테스트를 할 때 흉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대조군에 비해 12%나 더 높은 강도에서 시작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러닝머신 테스트를 하는 동안 명상 그룹은 심장이 받는 스트레스를 암시하는 심전도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18%나 지연된 반면, 대조군은 아무 변화도 없었다.

명상과 심혈관 건강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동맥벽의 두께 변화도 발견되었다. 명상이 좁아진 동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에머리 대학의 정신병리학자인 찰스 네메로프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어렸을 때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가벼운 스트레스 상황에도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히도 이러한



힘든 경험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경로를 비정상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어릴 때는 뇌의 스트레스 조절경로가 다소 비정상적이어도 신체적으로는 정상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수십 년 축적되어 중년에 이른 사람의 몸은 그렇지 못하다. 어린 시절

에 겪은 신체적, 성적 학대 등 심각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아주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매일 조금씩 받는 스트레스 요인은 기계의 기어에 쌓이는 모래 알갱이로 비유할 수 있다. 처음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방치하면 기어에 큰 영향을 주어 결국 멈춰 세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적된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반응에 대한 마음챙김, 즉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명상이 스트레스 증상의 감소, 통증의 완화, 뇌의 회백질 밀도 증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기능 향상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밖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명상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뿐 아니라 건강한 수면을 유도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하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명상이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신경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듯 명상을 하게 되면 뇌의 특정 부분에서 일어

나는 기능을 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생각 자체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됨으로써 스트레스에 쉽게 압도되지 않는다.

명상이 염증을 감소시키고, 집중력도 높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명상은 개개인의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방면으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명상을 하면 우리 자신을 비난이 아닌 친절로써 현재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고, 늘 깨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의 자동 반응에 무심코 휩싸이는 대신 조기 경고 신호를 기민하게 알아차려 우리 모두가 가진 치유의 잠재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명상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종의 든든한 내적 중심축을 형성해준다. 수천 년 전 종교로부터 시작된 명상이 이제는 심장병 전문의에서 암 연구자들까지 다양한 삶의 분야 속 임상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명상은 우리에게 단순히 질병 증상을 줄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유도해가고 있다.

사람이 악도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되기가 어려우며, 남자가 되었을지라도 육근 六根을 온전히 갖추기 어렵고, 육근을 갖추었더라도 큰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다.

큰 나라에 태어났을지라도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기 어려우며, 부처님 세상을 만났을지라도 수행자를 만나기 어렵고, 수행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신심 信心을 내기 어렵다. 신심을 냈을지라도 보리심을 내기 어렵고, 보리심을 냈을지라도 닻음도 없고 증득함도 없는 경지에 이르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십이장경, 四十二章經)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육지가 변하여 큰 바다가 되었을 때에 수명이 무량한 눈먼 거북이 하나가 백 년에 한 번씩 그 머리를 바다 속에서부터 내미는데, 또 바다 가운데 나무 한 토막이 파도에 표류하여 바람 따라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흘러갔다. 이제 이 눈먼 거북이 머리를 내밀 때에 이 나무토막을 만나겠느냐?”

아난이 여쭙었다.



사찰의 커피문화 II. 커피의 한국 전래와 제조과정

김상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전공 / 바리스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눈먼 거북이 만약 바다 동쪽으로 가면 나무토막은 바람 따라 혹은 서쪽이나 남쪽, 북쪽 등으로 떠돌 것이기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눈먼 거북과 나무토막은 비록 서로 어긋나서 다니지만 혹은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범부가 오취¹⁾에 표류하다가 사람의 몸을 다시 얻기란 눈먼 거북이 나무토막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이런 까닭에 너희들은 이제 사람이 되었을 때 부지런히 닦고 교²⁾를 배우라.”

(잡아함경, 雜阿含經)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태어났더라도 오래 살기 또한 어려우며, 진실한 교법을 듣는 것도 어렵고, 진리를 깨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많은 꽃을 모아서 꽃다발을 만드는 것처럼 한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살아 있는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라. 현세에서 행복하면 후세에는 훌륭한 곳에 태어나리라.

(법구경, 法句經, 불교총론 발췌)

1) 오취(五趣) : 중생의 업인(業因)에 의하여 나아간다는 곳. 지옥·아귀·축생·인간·천상.

1. 한국의 커피전래

한국의 각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의 수행과 커피마시는 일상은 문화나 다름없다. 이러한 커피문화가 형성되어 일상화 되었기에 한국의 커피전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차의 전래시기가 다양하다지만 신라와 고려의 음다풍을 거쳐 조선과 근대 시기까지 수많은 흥성과정을 거쳤음이 짐작된다.¹⁾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차 문화 속에 초의 선사의 사상이 크게 자리 잡고 발전되어 왔음은 분명하다.

사찰의 커피문화에 따른 원두 콩의 전래 시기는 의견이 다양하다지만 한국의 커피 전래에 있어서 정확한 시기를 파악할 때, 19세기 후반 특히 임오군란(1882년) 이후의 1890년 사이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본다.²⁾ 구체적으로는 구한말, 조선 말기에서 대한 제국까지의 시기에 청나라를 통해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왕래가 늘어났다. 임오군란 이후 미국, 영국 등 서양의 외교사절이 들어오면서 커피의 음다풍속³⁾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서양 외교관들은 조선 왕실과 상류층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커피를 진상했다. 커피의 향과 카페인은 왕족들과 대신들을 매혹시킴과 동시에 곧 기호품으로 자리 잡

을 수 있었다.³⁾

여기서 한국인 최초의 커피 애호가 고종을 빼놓을 수 없다. 고종황제는 을미사변(1895년)당시 피신해 있었던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 맛보는 것을 계기로 궁중의 다례의식에 커피를 올려놓기에 이른다.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민가에도 외국인 선교사, 상인들을 통해 커피가 파급되었다.⁴⁾ 그 당시 양탕(洋湯)국이 라고 불린 커피는 1945년 6.25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주둔하면서부터 오늘날 다방커피라고 불리는 인스턴트(instant)커피⁵⁾를 시작으로 한국에 보급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커피는 1960년대까지 귀한 손님들에게 접대하는 귀한 음료였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보편화된 음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국민 소득이 점점 올라가면서 값싼 인스턴트커피가 아닌 상대적으로 비싼 원두(原豆)커피⁶⁾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그것은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신체적, 일차원적인 인스

1) 노상준, 『차와 민속문화』(신문고), 2014.1.2. pp.1~2.

2) 김성윤, 『커피 이야기』, 살림 출판사, 2004. pp.40~50 발췌.

3) 김성윤, 『커피 이야기』, 살림 출판사, 2004. pp.40~50 발췌.

4) 김성윤, 『커피 이야기』, 살림 출판사, 2004. pp.40~50 발췌.

5) 인스턴트 커피(Instant Coffee) : 물에 타면 곧바로 먹을 수 있게 가공한 커피. 커피를 농축한 액을 알갱이 상태가 되도록 말리거나 얼려 만든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941100> 국립국어원 제공.

6) 원두 커피(Brewed Coffee) : 커피 열매를 볶은 후 갈거나 빻은 가루를 여과지나 기구 따위를 이용하여 내리 마시는 커피. 네이버 백과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9093200> 국립국어원 제공.

턴트커피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각기 문화생활의 여유와 삶을 온전히 느끼며 커피를 향유하는 정신적, 다차원적인 원두커피 개념으로 발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듯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원두커피는 큰 인기를 끌며 점차 보급화 되었다. 그 문화를, 오늘날 사찰의 다실과 처소 근처에서도 두루 볼 수 있다.

2. 산지별 커피 원두의 종류와 생산과정

커피의 핵심인 원두는 산지별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대략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산으로 나뉜다.

이밖에도 산지의 다양한 원두들이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원두는 지점별로 상이하나 라틴아메리카 계열에서는 콜롬비아 수프리모와 브라질 산토스를 내놓고 있다. 아프리카 계열에서는 케냐AA를 중심으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아시아 계열에서는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중심으로 한 원두를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두는 비옥한 토양과 온전한 기후를 바탕으로 커피나무의 재배와 열매 수확 과정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양질이 달라지는데, 커피나무의 성장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비옥한 흙과 비료를 섞어 묘판을 만들고 1~2개의 커피 씨앗(파치먼트)을 심는다. 종자를 뿌린 뒤 40~60일 정도 지나면

씩이 돋고, 20~30일이 경과하면 떡잎이 나온다.

2. 파종하고 나서 약 5개월이 경과한 묘목. 나무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다.

3. 이식 직전의 묘목들. 발아 후 약 10개월이 지나면 농원으로 이식하게 된다.

4. 커피농원으로 이식된 후의 커피나무들. 식수 후 2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커피나무로 성장하면서 수확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다.

5. 발아 후 약 1년이 지나면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도 조금씩 열린다. 커피 꽃은 잎이 붙어 있는 줄기 사이의 겨드랑이에 군생해서 핀다. 3년이 지나면 다량의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자란다.

6. 잘 익은 커피체리. 은은한 단맛이 나는 외과피(껍질)를 벗기면 내과피에 둘러싸인 씨앗(파치먼트)이 나오며, 이 내과피를 제거하고 잘 말린 다음 껍질을 제거해야 최종적인 그린빈(생두)이 완성된다.⁸⁾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그린빈 즉, 원두가 되기 바로 전인 생두가 완성되는 것이다. 생두는 그 후로도 품질에 따른 선별과 볶기 전 또는 후의 블렌딩⁹⁾을 거치며 로스팅¹⁰⁾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원두로 생산된다.

이렇듯 한 알의 커피콩을 얻기 위해 커피나무를 심고 재배 및



수확하여 그린빈을 선별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은 있기 마련이다. 그만큼 양질의 원두로 최고의 커피를 추출하여 음미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가짐 또한 있어야 한다. 이는 한 장의 찻잎을 얻기 위해 차나무를 심고 재배 및 수확하여 정갈한 마음으로 차를 우려내는 과정 모두를 수행법으로 여긴 선불교의 다선일미 사상과도 일맥이 상통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8) 이승훈, 『올 어바웃 에스프레소』, SEOULCOMMUNE, 2010.3.10. pp.10~25.

9) 블렌딩(blending): 커피용어로 블렌딩(blending)은 볶기 전 또는 볶은 뒤에 서로 다른 원두를 섞어 좋은 맛과 향을 얻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4994&cid=48181&categoryId=48261>.

10) 로스팅(roasting): 커피용어로 로스팅(roasting)은 생두(Green Bean)에 열을 가하여 볶는 것으로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생성하는 공정을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4324&cid=40942&categoryId=32127>.

차의 성질 1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일반적으로 차의 성질을 이야기하면 몸의 열을 내려주는 차가운 차와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뜨거운 차로 나누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차의 성질을 단순히 둘로 나누는 것보다는 차를 마시는 상황 또는 차의 특성에 따라 선택해 마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명절이면 바뀐 생활 패턴으로 유독 탈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식으로 체하거나, 밤낮 기온차로 인해 잠을 설쳐 인후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약을 찾기보다 차를 마셔 증상을 완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체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차는 단연 매실차일 것입니다. 새콤한 맛의 매실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만들어 소화 불량이나 가벼운 위염 증상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실의 성분 중 피크린산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식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피루브산은 간을 보호해 기능을 높이고, 독성 물질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있어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해 명절로 인한 피

로 개선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절 차례 상에 올리는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독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좋으며 기온차가 큰 계절에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이는 대추의 성질이 코의 모세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거리 운전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한다면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나 많이 들어있고 구연산도 풍부한 유자차를 권해봅니다. 또한 유자에는 리모넨이 풍부해 목의 염증과 기침 완화에 탁월하고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며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유자를 먹으면 통증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번째, 팔은 칼륨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식품입니다. 몸의 붓기를 제거하는데 좋은 팔차를 권해 봅니다. 우리 몸은 칼륨과 나트륨이 균형을 이루어야하는데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몸의 부기가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팔차를 마시면 나트륨이 체외로 배출되도록 도와 부기가 가라앉고, 혈압 억제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생활에 커피는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향과 맛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적재적소에 차를 음다함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치고 아픈 몸에 잠시 휴식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을 생각하여 식후 식혜 한잔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다양한 차와 함께하는 것을 권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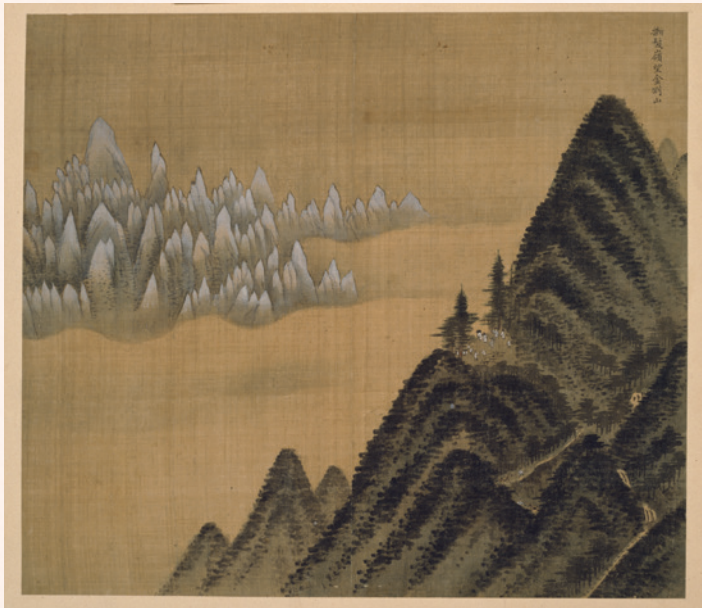
정선(鄭敎, 1676~1759)이 그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斷髮嶺望金剛山)>은 바라보는 주체와 바라봄의 대상이 모두 표현된 특별한 그림입니다. 그림 오른쪽에는 단발령에 서서 저 멀리 금강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단발령은 금강산 여행이 시작되는 고개로, 이 고개에서 바라본 광경이 너무나 황홀해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 승려가 된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정선은 단발령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길과 그곳에서 느낀 강렬한 첫인상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그려진 금강산 일만이천 봉우리는 하얗게 칠해져 은빛 수정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정선은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당시의 벽찬 감동을 담고자 근경과 원경 사이를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정선의 그림은 조선 말기 학자인 이상수(李象秀, 1820~1882)의 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이 드높은 가을날 저녁별이 동쪽을 비출 때, 저 멀리 하얗게 솟아오른 금강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황홀하여 결국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다고 한다. 봉우리마다 하얗게 눈이 내린 듯하고 그 바위의 생김은 마치 늙은 신선들 같아, 구슬 관

을 쓰고 흰옷을 입은 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늘어서서 서로 인사하는 듯 실로 장엄하다.”

이상수, 「동행산수기(東行山水記)」 중



정선, 《신묘년풍악도첩》 중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조선 1711년, 비단에 색, 34.3×39.0cm, 보물 제1875호, 덕수903

《신묘년풍악도첩 辛卯年楓嶽圖帖》은 〈단발령망금강산〉을 비롯하여 〈금성金城〉 〈피금정 披衾亭〉 〈금강내산총도 金剛內山總圖〉 〈장안사 長安寺〉 〈보덕굴 普德窟〉 〈불정대 佛頂臺〉 〈백천교 百川橋〉 〈용천 甕遷〉 〈고성 高城 문암관일출 門巖觀日出〉 〈해산정 海山亭〉 〈총석정 叢石亭〉 〈삼일호 三日湖〉 〈시중대 侍中臺〉 13점의 그

림과 신영 쓴 발문 1편(1807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엄한 자연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흔들여 놓습니다. 때로는 바라보는 행위나 보고 있는 나라는 존재까지도 잊게 합니다. 그 놀라운 체험과 치유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금강산을 처음 다녀온 정선은 신비하고도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그림으로 풀어내고자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는 이전의 실경산수화 전통에서 한걸음 나아가 조선의 산수가 가진 특징을 담기 위해 새로운 구도를 사용하고 실험적인 화법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신묘년풍악도첩》은 정선이 완성한 개성적인 진경산수화의 첫 단계로서, 화가가 자신의 시선이 닿은 풍경을 재구성하면서 금강산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오다연> 제공

구룡포 차차차下

lovely찌이

대게, 물회 맛집 구룡포

대게는 양덕에만 있을까? 으→으↗응↘ (포항에선 부정의 대답이다)

구룡포읍에 들어서면 푸른 바다 앞의 저마다 커다란 대게 한 마리씩 가게 간판위에 이고 손님들을 유혹하는 가게들을 만날 수 있다. 대게들로 꽉꽉 차있는 수족관 앞을 어찌 그냥 지나치리라~

인심 푸짐한 가게 주인들은 대게만 먹으면 섭섭할까봐 기본 반찬 가득한 한상 차림을 차려주며 대게와 함께 구룡포 인심을 맛볼 수 있게 준비를 한다.

손님들이 손가락으로 째한 대게들을 잡아 올려 그 자리에서 바로 찌서 주면 아주 만족스럽게 손가락 쪽쪽 거리며 흡족해한다. 거기다 계딱지에 잘게 자른 김에 총총 썬 시큼한 김치, 고소한 참기름 한 방울 곁들여 비벼주는 계장 비빔밥까지 먹으면 바다 내음 가득한 한상을 입 안 가득 머금고 가게 밖을 나서게 된다.



물회 또한 대게 못지않게 맛집들이 가득하다.

새벽 배를 타고 나가 잡아 온 싱싱한 고기들로 시원한 오이를 총총 썰고 상큼한 배를 같이 곁들여 고추장 한 숟가락 가득 떠 젓가락으로 살살 비벼먹는 물회. 생각만 해도 그 시원함과 상큼함에 입맛이 다셔진다. 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진 육수를 부어 먹는 물회도 유명하지만 구룡포 고전의 물회는 고추장에 얼음 몇 덩어리 넣고 살살 비벼먹는 물회가 기가 막힌다. 여기에 물회만 먹음 섭섭할까봐 가자미 한 마리 구워주는 사장님의 센스 한 숟가락까지 더해지면 엄지 척 할 수밖에 없다. 오늘저녁 각얼음 추가한 물회 한 그릇 해야겠다. 하~ 입맛 다셔지네~

모리국수와 구룡포

“니 모리국수라고 들어 봤나?”

“모리국수가 먼데?”

“니 모리국수도 모리나? 모리국수는 옛날에 뱃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새벽에 배타고 나가가 고기 어망 까득 건져 올리면 해가 안 떠오르나? 배는 만선이제 해는 떠 오르제, 그카믄 배가 고파진다 아이가. 근데 배 안에 머가 있겠노? 가득 잡힌 고기 한 마리 잡아가 양은냄비에 해산물, 콩나물, 고춧가루, 마늘 양념장, 국수 등을 넣고 걸쭉하게 끓이가 묵었다 안카나. 그런데 어느 날 뱃사람 집에 육지손님이 놀러 오신기라, 뱃사람의 아내가 집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내어줄 음식은 읍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넣고 끓여가 대접했는데 이를 먹어 본 육지손님이 안주인에게 ‘장사해 보소~ 기가 막히네예~’ 캐가 장사를 시작했다 안카나.”

이처럼 쓱쓱 썬 여러 가지 채소와 해산물, 국수를 함께 끓인 모리국수는 구룡포읍의 어부들이 먹던 얼큰한 국수에서 유래 되었다. 모리국수라는 이름은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을 ‘모디’(‘모아’의 사투리) 넣고 여럿이 모여 냄비 째로 먹는다고 하여 ‘모디국수’로 불리다가 ‘모리국수’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음식 이름을 묻는 사람들에게 포항 사투리로 “나도



모린다”고 표현한 게 ‘모리국수’가 됐다는 얘기도 있으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집성촌이던 구룡포 지역의 특성으로 ‘많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모리’가 국수와 함께 먹는다 하여 모리국수라 불리게 된 것이란 설도 전해진다. 이름의 유래야 어떻든 포항의 푸짐한 인심을 먹는듯하여 든든하다.

#연오랑 세오녀의 구룡포

‘해맞이공원, 상생의 손’

해마다 1월 1일이면 해돋이 광장에 상생의 손이 등장하는 곳이 호미곶이다. 해를 제일 먼저 만나는 이곳에는 연오랑 세오

녀의 전설이 있다.

신라 8대 임금 아달라왕 때의 일이다.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
延鳥郎과 세오녀 細鳥女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바다 위에 홀연
히 바위 하나가 나타나자, 연오랑은 이것을 타고 일본으로 건
너갔다. 일본에서는 바위를 타고 온 이 사람을 왕으로 모셨다.
한편 아내인 세오녀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
지 않자 궁금하여 바다에 나가 보았다.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
을 보고 자기도 그 바위에 올라탔다. 그리하여 세오녀도 일본
으로 건너가 남편을 만나 왕비가 되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신라 땅을 떠난 뒤부터 해와 달이 빛을 잃
었다. 왕은 천문을 맡은 신하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 신하는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일본으
로 갔기 때문에 이런 변괴가 생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곧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연오랑 부부를 귀국시
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연오랑은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
늘의 뜻이니, 어찌 훌훌히 돌아갈 수 있겠소. 대신 나의 아내
가 가는 명주로 직접 짠 비단을 줄 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발할 것이요.” 라
고 말하며 비단을 주었다. 사신이 그 비단을 가지고 와서 하늘
에 제사를 지내자 과연 해와 달이 옛날같이 빛났다고 한다.

이에 그 명주를 국보로 모시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 했으
며 제사지낸 곳을 ‘영일현’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호
미곶은 해를 먼저 만나는 곳, 새해가 되면 좋은 정기 받기 위
해 겹겹이 외투를 입고 아침 일찍 해를 만나러 나서게 되는 곳
이 되었다.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로 발길을 돌리게 되면
이러한 설화도 볼 수 있고, 곳곳에 있는 포토 존에서 멋진 인
생사진 또한 건질 수 있다. 동해의 푸른 바다를 안고 멀리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흠날리는 바다내음은 구룡포만의 행복
이리라.

7번 국도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구룡포는
나의 치기어린 허세 가득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포항으로 놀러 오는 친구들을 어디로
데려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던 나에게 포항은 이제
사랑거리로 자리 잡았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기억하고
새로이 펼쳐 질 내일을 기약하며 멋진 설계를 할 수 있는 곳이
자 오징어 축제, 포항 불빛축제, 과메기 축제, 대게 축제가 분
주히 계절마다 열리는 구룡포.

이곳 구룡포로 놀러들 오이소~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범일 정사
정각사 주교



한 스님이 주말에도 정신없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었다.

간만에 오랜 도반 친구가 왔다. 하지만 스님은 일하느라 너무 바빴다. 스님이 도반 스님에게 말했다.

“다 돼 가고있어. 조금만 기다려.”

이 말에 도반 스님이 재치 있게 물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딘데?”

허둥대던 스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네가 날 구해주었네. 이렇게 허둥대다 보면 내가 갈 곳은 오로지 황천뿐이겠군”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 법

한 종교지도자가 다른 종교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관은 그에게 유죄를 명하고 사형을 언도했다. 그때 그는 재판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오 - . 저런 안됐군. 내가 재판관의 부인에게 부부간에 다투지 않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되었군.”

호기심이 발동한 재판관이 물었다.

“정말 당신이 내가 마누라하고 다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분명 부인에게 다투지 않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 마누라에게 나와 다투지 않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12달 동안 유예를 내리겠소. 1년 후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소.”

자유의 몸이 되어 법정을 나오는 스승의 모습을 본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정말 부부간에 다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나도 몰라. 그런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네. 하지만 내겐 1년의 자유가 있지 않은가? 그 동안 재판관의 아내가 죽을지, 아님 내가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성숙^{星宿}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날씨를 지배하는 것은 일월성^{日月星}이다. 별의 위치가 바뀌고 달이 변하는 것처럼 계절은 다양하게 변한다. 달은 월천자^{月天子}로 불리며 성숙^{星宿}의 왕으로 여겨졌고, 계절을 지배하고 농경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다.

인도에서 달은 소마(soma)라는 묘주^{妙酒}를 내어 부^富를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다. 한편 인드라(제석천)는 신주^{神酒} 소마를 마시고 바즈라(vajra 금강저)를 휘두르며 한발^{旱魃}의 마신^{魔神} 브리트라(Vrtra)를 죽이고, 바라고 기다리는 비와 광명을 가져온다고 한다. 『삼매야 만다라』는 아이라바나 용왕(Airāvāṇa)으로서 비구름 속에 꼬끼리를 그려 제석천상^{帝釋天像}을 가리키고 있다.

제석천이 가진 금강저(vajra)는 예지의 기능과 함께 위대한 힘을 보여주고, 야차귀신의 유사한 신앙과 습합하여 금강수^{金剛手}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고, 나중에는 금강살타로 인격화된다. 이에 따라 금강저는 독고금강저에서 세 갈래, 다섯 갈래로 발전하여 금강부^{金剛部}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든다.

그리고 『삼매야 만다라』에서 월천^{月天}은 연꽃 위[蓮上]의 월륜 속

에 보병^{寶瓶}을 그린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지신^{地神}을 나타내는 보병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대지가 온갖 생명을 기르는 보병인데 비해, 천연자연^{天然自然}의 순조로운 작용이 지상에 풍요로운 열매를 약속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태양, 달, 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로부터 칠요^{七曜}, 구집^{九執}, 십이궁^{十二宮}, 28숙^{二十八宿}의 신앙이 있다. 칠요는 별의 운행에 따라 기^氣, 운명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준다고 하고, 라후(Rahu 식신^{蝕神})와 케투(Ketu 혜성)의 두 별은 천체의 운행에 평형을 잃게 하는 것으로서 두려워한다.

12궁은 1년의 태양의 높이를 별자리에 맞추어 나타낸 것이고, 28숙은 달 길을 가리키는 별자리에 맞추어 나타낸 것으로 12궁과 28숙으로 계절의 변화, 날짜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변화 속에서 자연계는 치장을 새롭게 하고, 때로는 홍수, 가뭄을 초래하는 등 재앙을 입게 된다. 이 큰 힘이 일월성에 있다고 하여 성숙을 신령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삶이라는 영화에서 빠져나오기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묵탁소리' 지도법사

온갖 다양한 영화가 상영된다고 할지라도 그 영화관의 하얀 바탕의 스크린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스토리의 영화를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온갖 다양한 이야기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오고 가지만 그 배경의 스크린에는 아무런 일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래 바탕이라는 마음자리는 텅 비어 있지만, 그 위로 삶이라는 인생 스토리가 영화처럼 지나가게 된다.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온갖 이야기가 지나가고, 온갖 사람들이며, 문제들, 상황들이 계속해서 스쳐지나간다. 그러나 그것은 꿈과 같은 하나의 헛된 환상일 뿐이다. 인연 따라 잠시 왔다 가는 것들이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아 집착하면서 공연히 에너지를 낭비한다. 이별하고 실패할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배경의 스크린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본다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런 일들이 그저 왔다가 갈 뿐이지만 배경에서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배경에 머물게 되면, 사랑도 이별도 아무런 차별 없는 환상이고, 성공도 실패도 아무런 차별 없는 같은 일이 될 뿐이다. 거기



에 아무런 차별도 의미도 없다.

우리의 본래마음, 본래면목, 참나 혹은 불성이라고 부르는 방편이 바로 이 영화의 스크린과 같다. 삶 위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좋은 일과 싫은 일들이 아무리 많이 오고 간다고 할지라도 사실 본래면목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 자성의 참성품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영화의 내용은 계속해서 좋고 나쁜 일이 반복되며 움직이지만 그 배경의 스크린은 다만 그 모든 내용을 비출 뿐, 좋고 나쁜 이야기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삶이라는 영화에서 벌어지는 좋고 나쁜 이야기, 삶의 스토리, 성공과 실패의 줄거리, 바로 그것이 나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집착해 왔다. 그러다보니 삶에서 보다 좋은 일을 만들려고 애쓰고, 보다 성공적인 삶의 드라마를 쓰려고 노력하고, 남들에게 이기고 영웅이 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야말로 삶의 성공이라 여기면서 지금까지 그 영화 스토리에만 사로잡혀 왔다.

그런데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보자는 것이다. 영화 속 줄거리에 사로잡혀 있던 시선을 영화의 스토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배경의 스크린 쪽으로 돌려 보자는 것이다. 물론 같은 곳을 보지만 전혀 다른 곳을 보는 것이다. 똑같이 영화를 보지만 영

화의 스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의 스크린을 보는 것이다.

그럴 때는 그 영화의 줄거리가 좋고 나쁨에 전혀 상관없이 한결같이 여여하다. 줄거리와 스토리는 변해도 그 배경은 전혀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실의 세계, 즉 일진법계다. ‘하나의 진실한 법계’ 이 자리에 서게 되면 한결같이 여여할 뿐, 삶의 성공과 실패라는 허망한 이야기에 속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깨달은 이는 삶을 우리와 똑같이 살지만 전혀 흔적이 없고, 번뇌가 없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이 삶 위로 다만 지나가게 내버려 두라. 그 영화의 스토리 속에 뛰어들어 울고 웃기 보다는 그 모든 것이 오고 가는 배경으로 떨어져 나와 보라. 그 오고 가는 것들에 마음을 쓰지 말고, 한 발자국 떨어져 영화관의 스크린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만 바라보라. 당신의 본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고요할 뿐.

-‘법상 스님의 묵탁소리’ 공식 카페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 | | | | | | | | | |
|----|---|---|----|---|---|---|----|---|---|
| ①㉑ | | ㉒ | | ㉓ | | | ②㉔ | | ㉕ |
| | | | | ③ | | | | | |
| | | | | | | | | | |
| ④ | ㉖ | | | | ⑤ | ㉗ | | | |
| | | | | ㉘ | | | | ㉙ | |
| ⑥㉚ | | ㉛ | | | | | ⑦ | | |
| | | | | ⑧ | | ㉜ | | | |
| ⑨ | ㉝ | | ⑩㉞ | | | ⑪ | | | |
| | | | | | ⑫ | | | | * |
| | ⑬ | | | | | ⑭ | | | |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홍보실

●정답은 위드다르마 다음 호, 총지신문 9월호 게재

가로 열쇠

- ① 한국정통밀교를 다시 일으키고, 불교총지중 창종을 하신 분
- ② 말을 기르는 곳
- ③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뜻의 불교용어
- ④ 일의 이치를 구분하여 생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 ⑤ 고추장, 간장, 된장, 장독대
- ⑥ 견과류의 황제, 쿠키에 많이 들어가 있으며 호주가 원산지
- ⑦ 발을 이용해 페달을 돌림으로써 전진하는 탈 것
- ⑧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뜻, 나이 50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남의 비위를 맞추며 알랑거림
- ⑩ 물안경
- ⑪ 맹인인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효녀의 이야기
- ⑫ 마음을 쓰는 속 바탕(마음씨)
- ⑬ 제주 서귀포시 사계리 해안에 있는 산
- ⑭ 달콤한 말과 이로운 이야기, 남의 비위를 맞춰 꾀하는 말

세로 열쇠

- ㉑ 일심과 화쟁,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신라의 승려
- ㉒ 사과의 원조, 00광역시
- ㉓ 석가의 설법으로 모든 악마가 불교에 귀의하였다는 말,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 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 사이를 오가며 스파이로 활동, 매혹적 여성 스파이의 대명사
- ㉕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 지방의 옛 이름, 동서 문화를 융합시킨 독특한 형태의 불교미술 발달의 원천
- ㉖ 바퀴가 둘 달린 운반용 작은 수레
- ㉗ 실체로서의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
- ㉘ 정신이 한곳에 온통 쏠려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
- ㉙ 아버지와 아들이 많이 닮았음을 뜻하는 사자성어
- ㉚ 마약과 도박, 금융 따위에 관련된 거대한 범죄 조직
- ㉛ 첫잎 따기에서 달여 마시기 등으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덕을 쌓는 행위
- ㉜ 조선시대 서당 등에서 어린이들의 학습교재로 사용해 온 한문교양서
- ㉝ 토지와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
- ㉞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산
- * 옛날부터 민간에서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

지난호 정답

| | | | | | | | | | | |
|----|---|---|---|---|---|---|---|----|---|---|
| ①㉔ | 관 | 세 | 음 | 보 | 살 | | 골 | | 정 | |
| | 심 | | | 보 | | | 육 | 자 | 진 | ㉕ |
| | 법 | | ③ | 법 | 시 | | 상 | | | 행 |
| | | | | 도 | | ④ | 화 | 쟁 | 사 | 상 |
| | | ⑤ | ㉖ | 량 | ㉗ | | | ⑥㉘ | 도 | ㉙ |
| ㉚ | 심 | | 상 | | ⑫ | 수 | | 세 | | 탄 |
| | 기 | | 희 | | | 적 | | ⑦ | ㉛ | 일 |
| | 일 | | ⑬ | 사 | 서 | 석 | | | 도 | |
| ⑧ | 전 | 시 | | 원 | | ⑨ | 천 | 도 | 대 | 재 |
| | | | ⑩ | 총 | 지 | 종 | | | ⑪ | 일 |
| | | | | | | | | | | 심 |

| 〈가로〉 | 〈세로〉 |
|--|---|
| ① 관세음보살 ② 육자진언 ③ 법시 ④ 화쟁사상 ⑤ 사무량심 ⑥ 도량석 ⑦ 자성일 ⑧ 전시 ⑨ 천도대재 ⑩ 총지종 ⑪ 일심 ⑫ 술수 ⑬ 사서 | ㉔ 관심법 ㉕ 보보시도량 ㉖ 골육상쟁 ㉗ 정진 ㉘ 언행 ㉙ 무상희사 ㉚ 심술 ㉛ 사도세자 ㉜ 심기일전 ㉝ 수적석천 ㉞ 성도재일 ㉟ 서원지 ㊱ 석탄일 ㊲ 상량 |



by 서울 밀인사 임은하 교도

‘자리어타’ 自利利他

자기 자신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라.

- 레너드 제이콥슨의《마음은 도둑이다》중에서 -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 | | | |
|-------|-------------|-----------|-----------------|
| 공식불공 | 매일 오전 10시 |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 자성일불공 | 매주 일요일 | 상반기 49일 | 양력 |
| | 오전 10시 | 진호국가불공 | 2월 19일 ~ 4월 8일 |
| 월초불공 | 매월 첫째 주 7일간 | 하반기 49일 | 양력 |
| 신년불공 | 1월 첫째 주 7일간 | 진호국가불공 | 5월 28일 ~ 7월 15일 |
| 종조탄신일 | 양력 1월 29일 | 해탈절 (우란절) | 양력 7월 15일 |
| 종조멸도절 | 양력 9월 8일 | 창교절 | 양력 12월 24일 |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 사원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통리원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 (02)552-1080-3 |
| 동해중학교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 (051)556-0281~2 |
| 사회복지재단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3452-7485 |
| 서울경인교구 | | | |
| 관성사 | 0316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 (02)736-0950 |
| 밀인사 | 031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 (02)762-1412 |
| 법천사 | 1338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 (031)751-8685 |
| 벽룡사 | 0870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 (02)889-0211 |
| 시법사 | 21358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 (032)522-7684 |

| | | | |
|---------------|-------|--------------------------------|-----------------|
| 실지사 | 0116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 (02)983-1492 |
| 정심사 | 02137 | 서울특별시 종량구 면목로 95길 26 | (02)491-6888 |
| 지인사 | 2143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 (032)528-2742 |
| 총지사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 (02)552-1080 |
| 충청전라교구 | | | |
| 만보사 | 35045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 (042)255-7919 |
| 법황사 | 61636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 (062)676-0744 |
| 혜정사 | 28485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 (043)256-3813 |
| 흥국사 | 55049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 (063)224-4358 |
| 증원사 | 28065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 (043)833-0399 |
| 대구경북교구 | | | |
| 개천사 | 41958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 (053)425-7910 |
| 건화사 | 38009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 (054)761-2466 |
| 국광사 | 38145 |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 (054)772-8776 |
| 단음사 | 38843 |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 (054)333-0526 |
| 선립사 | 3754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 (054)261-0310 |
| 수계사 | 38048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대경길36-19 | (054)745-5207 |
| 수인사 | 37705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 (054)247-7613 |
| 승천사 | 38129 |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 (054)746-7434 |
| 제석사 | 41237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 (053)743-9812 |
| 부산경남교구 | | | |
| 관음사 | 4726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 (051)896-1578 |
| 단향사 | 53075 |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 (055)644-5375 |
| 덕화사 | 46547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 (051)332-8903 |
| 밀행사 | 50427 |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 (055)354-3387 |
| 법성사 | 48817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 (051)468-7164 |
| 삼밀사 | 49060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 (051)416-9835 |
| 심화사 | 48959 |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 (051)254-5134 |
| 실보사 | 44452 |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 (052)244-7760 |
| 운천사 | 51257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 (055)223-2021 |
| 일상사 | 50409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 (055)352-8132 |
| 자석사 | 4824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 (051)752-1892 |
| 정각사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 (051)552-7901 |
| 화음사 | 52707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 (055)755-4697 |
| 동해사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 (051)556-0281~2 |

뜨거웠던 여름도 차나,
어느덧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이
함께하는 가을입니다.

9월에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로',
이를 실감케 하는 '추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더웠던 지난 여름,
피약병에 그을리고 폭우에 젖어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우리를
미지근한 온기와 서늘한 냉기로
위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독함이 있었기에
자애로움도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부디 자연보다 더 큰 인재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워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워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김종철 법 공 손경옥 안한수
오승헌 오채원 오현준 이인성 이태림 이해성
자선화 정법계 정재봉 정화연 총지화 한철수



09월호



헤치고 오르려는 저산 기슭엔
이리저리 오솔길 많기도 하다
높은 산 마루턱에 올라만 가면
같은 달 모두 함께 보게 되누나

- 환당 대중사 법어록 중에서 -